

# 식품 수출 정보

## 業 務 部

### 일본, 화학적 합성품이외의 식품 첨가물표시

#### 용도명 병기를 8용도 222개 품목으로 확대

일본후생성은 화학적 합성품이외의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89년 4월 그 리스트를 작성, GATT에 통보한 바, 7월에 미국, EC,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크레임이 걸렸다.

크레임의 내용은 용도명 병기에 관한 것으로서 '88년 7월 표시규제를 개정한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용도명 병기를 8용도로 규제한 것으로서 이번의 “화학적 합성품이외의 식품첨가물”의 용도명 병기를 4용도 6품목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시를 합성첨가물과 「같은 모양으로 실시하는 것」이라 하여 '88년 7월의 표시규제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 했다.

일본후생성은 워싱턴에서 미국측과 협의한 결과 8월 23일 화학적 합성품으로 용도명을 병기한 8용도에 관해서는 물론 화학적 합성품이외의 것에도 용도명을 병기하도록 합의하였다.

이 때문에 화학적 합성품이외의 것의 용도명

병기는 8용도 222품목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화학적 합성품이외의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에 관해서 당초 8월말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크레임에의 대응으로 지연되었다.

일본은 이 합의 사항을 받아들여 식품 첨가물표시검토회, 식품위생조사회에서 검토한 후 '89년 10월말까지 식품위생법시행규칙등의 개정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8년 7월 표시기준을 개정한 화학적 합성품 347품목과 함께 화학적 합성품이외의 식품첨가물 1,002품목에 대한 새로운 표시가 '91년 1월 1일쯤 동시에 실시될 것이다.

용도명 병기의 식품첨가물비교표(안)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	화학적 합성품이외 의 식품첨가물
감 미 료	5	22
착 색 료	29 (4품목추가)	100
보 존 료	14	8
호 료	8	50
산화방지제	12 (4품목추가)	42
발 색 제	3	0*
표 백 제	5	0*
방 미 제	4	0*
합 계	80	222

\* : 현재 해당품목없음.

참고서적 : 일본식품공업 1989년 10월 15일호  
Vol. 32 No 19 p 10  
THE FOOD JOURNAL

### 팜오일, 生産・消費・交易 증대예상

#### 美 U.S.D.A 향후 1年間을 분석·전망

미국의 USDA(US Dept. of Agriculture)에 의하면 향후 1년('89.10~'90.9)을 전망할 때 식용유, 특히 팜오일과 콩기름이 생산·소비및 교역이 증가할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해보면 '89. 10월부터 '90.9월까지의 1년간의 총식용유 생산은 국제 수출가의 지속인상에 힘입어 5,430만톤으로 보고있다. 우선 주종식용유로 지칭되는 Soy bean의 주산지인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생산증가율 4%와, 팜오일의 주산지인 말레이시아의 생산증가율 18%, 전체 식용유의 생산증가는 6%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10년간 년평균 소비증가율이 4%였음에 비해 향후 1년간을 통해 Soy bean 6%, Palm oil 19%등으로 소비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인은 여타식용유 즉 Rapeseed · Cottonseed · Peanut 등의 수요감소 추세에 따른 반사효과로 풀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생산및 소비증대에 의해 이의 세계 교역량 또한 동기간중 8.0~8.5%의 신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대수입 수요국인 印度의 수입 폭증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매년 많은 팜오일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말레이시아 연도별 수출실적및 우리나라의 수입추이는 다음과 같다.

· Palm oil 輸出실적

(단위 : U.S \$ 백만)

- 1987 : 1,387 (총수출의 7.7%. 전년비 5.5%증)
- 1988 : 1,753 (총수출의 8.6%. 전년비 26.4%증)
- '89.1-5 : 810 (총수출의 8.3%. 전년비 23.0%증)

·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팜오일 輸出실적  
(단위 : U.S\$ 백만)

- 1987 : 50 (對 말레이시아 총수입의 4.6%)
- 1988 : 63 (對 말레이시아 총수입의 4.7%)
- 1989.1-6 : 30 (對 말레이시아 총수입의 4.1%)

## 加, 中國産 버섯통조림 毒性검사

### 中國産 버섯통조림 수요감소예상

캐나다 보건당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버섯통조림에 대한 毒性검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아직 각상점이나 슈퍼마켓 등에 이미 유통된 버섯통조림을 수거하고 있지는 않고 수입통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보건부가 중국산 버섯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데 뒤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버섯으로 인해 100여명이 식중독을 일으키고 그중 16명이 입원한바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아직 중독환자가 발견된바 없다.

중국산 버섯통조림에 대해 포도상 구균인 Aureus 검출여부를 검사하게 되는데 이균은 박테리아의 일종으로 Toxin을 생성하며 이독신 성분이 구토 · 현기증 · 메스꺼움 · 복부경련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지난 88년의경우 캐나다 전체 수입 버섯류 통조림중 중국산이 62%를 차지 했는데 이는 1.067만 2.058kg의 물량으로 C\$1.800만에 해당한다.

이같은 조치로 중국산 버섯통조림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는 한편 3천여만불의 캐나다 버섯통조림 수입시장 판도에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것으로 분석된다. (KOTRA 海外市場)

## 필리핀, 커피原豆 求償貿易 제안계획

우리나라 등에, 國際커피 價格 下落에 따라

최근 필리핀 商工部 고위관리는 마닐라貿易館에 필리핀産 커피原豆의 수출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와 소련 · 루마니아 · 東獨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求償貿易 가능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가 이와같은 구상무역을 추진케 된 동기는 커피原豆 국제가격의 하락에 따라 지난 7월 4일 커피쿼타 制度가 정지됨으로써 필리핀의 금년 커피輸出額이 약 5천만弗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 한다.

國際커피機構(Int'l Coffee Organization)의 커피原豆 기준가격은 톤당 1,120弗 이나 브라질의 덤핑攻勢에 따라 현재의 국제시세는 단지 1천弗 정도에 형성되고 있어 커피쿼타制度 자체가 7월초부터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필리핀의 커피 輸出은 86년까지 연평균 1억弗 정도였으나 87년부터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연평균 4천~5천弗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기 구상무역건은 국영기업체인 필리핀 國際貿易公社(Philippine Int'l Trading Corp)가 담당창구가 될 것인데, 현재는 필리핀상공부가 각국가별로 커피수출에 대응한 수입가능품 목록리스트를 작성중에 있다.

필리핀 商工部는 그들의 커피求償貿易 제의에 대해 상대국가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커피原豆 오파價格은 한국제시세를 따르게 될 것이고 현시세가 國際커피機構의 기준시세보다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購買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커피원두는 약 2년간은 부패에 대한 걱정없이 저장이 가능한 품목이니만치 구상무역대상품목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필리핀 商工部는 판단하고 있다.

## 콜롬비아, 90년도 커피收入 減少예상

커피機構 붕괴로, 커피價格 파운드당 0.8 弗선 전망

커피 輸出쿼타 할당문제와 회원국·비회원국 간의 커피 수출가격 차별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어오면서도 지난 27년간 안정적인 커피價格 유지와 커피 생산국과 消費國들 사이의 조정역할을 맡아왔던 커피機構(ICO :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가 붕괴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각국의 커피 投賣 현상이 일어나 금년 초 파운드당 1.6弗까지 하던 커피價格이 6월말 0.6弗까지 떨어졌다.

최근 커피價格은 조금씩 회복되어 0.8弗 선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더 이상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 90년도에도 계속 0.8弗 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제1의 커피 生産國은 브라질이지만 콜롬비아도 커피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커피 輸出에 의한 外貨획득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의 수출에서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86년까지만해도 거의 50%에 육박했으나 87년부터는 커피價格 하락과 기타 原油·석탄·工產品 등의 수출증가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금년도 커피 수출은 8월말 현재 10억 5,900만弗로 전년동기 수출액 10억 7,200만弗과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커피價格이 하락하기 전인 금년초 契約分이 많기 때문이며 하반기 실적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輸出실적

(단위: US\$백만,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커피수출	1,812	2,842	1,650	1,641
비 중	46.3	53.3	30.6	30.1
총 수출	3,917	5,331	5,386	5,448

[자료: 콜롬비아 통계청(DANE)]

콜롬비아의 커피生産은 지난 70년대에는 연평균 700만포대(60kg들이)였으며 80년대에

들어서는 연평균 1,200만포대를 생산해왔다. 또한 지난 몇년간 커피 栽培面積을 늘려 내년부터 향후 13년간은 연간 생산량을 1,300만포대로 증가시킬 계획으로 있다. 콜롬비아 커피組合은 90년도 커피 輸出額을 10억 7,700만弗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커피機構 會員國에 대한 커피 수출은 62~67년간에는 연평균 570만포대였으며 83~88년간에는 950만포대에 달해 이 두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세계 커피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서 16%로 증가했으며 전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에서 13%로 증가했다.

콜롬비아 커피組合은 90년의 세계 커피需要가 약 7천만포대, 공급이 약 7,800만포대로 약 800만포대의 초과공급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예상량은 과거 커피機構 회원국에 공급하던 물량 5,800만포대와 非會員國에 대한 공급량 1천만포대에 각국의 커피 收入보전을 위한 추가 공급량 약 1천만포대를 합한 것인데. 이 추가공급량은 브라질이 300만포대, 콜롬비아가 250만포대, 인도네시아 100만포대, 멕시코 70만포대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타 커피生産國인 케냐나 파푸아뉴기니 등의 공급량까지 더한다면 공급초과량은 1,200만~1,400만포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콜롬비아는 커피機構의 붕괴가 모든 커피 생산국, 특히 브라질이나 콜롬비아같은 주생산국에 큰 피해를 미친다고 판단, 가능한 한 커피機構를 유지한다는데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커피機構가 완전히 붕괴한다면 파운드당 1.3弗 정도의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데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커피價格 하락에 따른 外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커피수출 총력전을 펴는 한편, 기타 工產品이 수출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커피 수출증대를 위해서 貿易역조국에 대한 커피 수입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제품 多邊化 정책도 적극적으로 모색 인스턴트 커피·커피飲料·커피엑기스·커피술 등을 개발, 販促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커피價格이 하락했어도 우리나라의 커피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커피機構의 非會員國이어서 그동안 회원국에 대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해왔기 때문이다.

콜롬비아정부는 커피 수출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87년 이후 콜롬비아와의 交易에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 커피 수입을 증가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둘 필요도 있겠다.

## 식품위생법 배부안내

본회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최근 전면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한정판으로 발행, 배부중에 있어오니 아래의 요령으로 구입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배부가격 : 권당 7,000 원
2. 배 부 처 : 한국식품공업협회 관리부 (585-5025,3)  
주소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2-6  
지방에서 우편으로 구입시에는 우체국 발행 소액환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송료 협회부담)